

경도공장보건회에서 연수를 마치며.....



마산산업보건센터
이 광 재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게 그저 가슴 설레이며 떠나는날 까지 믿어지지 않았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떠나던 기분이 되살아 났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기분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듯이 나역시 콜롬버스가 된 기분이기도 했다. 누구나 한번쯤은 타국에 가보고 싶은 꿈을 가질런지도 모른다.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연수라는 명목아래 해외로 나가게 되었지만 여행은 좋은 것이다.

해외여행이라 더 좋은 것일까?

1월 8일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졸업여행, 신혼여행, 다음에 지금- 해외여행.

익숙하지 않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보니 기대반, 불안반,

기약할 수 없는 언제쯤 다시 또 해외로 나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1달반 가량 일본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미처 다 하지도 못했을 무렵,

1시간 20분의 비행을 마치고 간사이(關西)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OSIC에서의 생활은 미국인들과의 orientation으로 시작했다.

이들간의 orientation으로 그 곳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새로운 분위기에 맞추어 안목을 넓히기 위한 심도 있는 화제거리를 나누다보니,



↑야나가와 선생님과 초음파 실습
짧은 영어실력이 한스러웠다.

영어가 타국에 와서 고생한다는 말을 실감했다고나 할까.

2주간의 일본어 어학 연수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 덕분에 큰어려움 없이 즐겁게, 재미있게 일본어 어학 연수기간을 보냈다. 어학 연수 동안 어학 실습겸 관광도 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크다는 수족관인 “해유관(海遊館)”과 교토의 대표적 사찰인 “청수사(清水寺)” 그리고 “이조성(二條城)” 등등.

세계에서 두번째로 손꼽히는 곳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있었다.

해유관을 수족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웅장했다. 작은 바다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마치 내가 바닷속을 거닐고 있다는 착각을 느끼기도 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권에 있기에 사찰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았지만 이교라 볼 수 있는 신사가 사찰내에 같이 있다는 것이 특이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사찰만큼 경건함과 엄숙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OSIC에서 2주간의 어학연수를 마친 뒤 교도에 있는 경도공장보건회-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3주간의 기술연수를 받았다.

OSIC에서 경도공장보건회까지는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를 출퇴근 하면서 일본인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출퇴근이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까다(中田)’ 전무이사님으로부터 경도공장보건회의 내력과 각 부서들의 활동 상황을 설명 들으면서 좀 더 나은 업무에 부족한 기술의 연수를 받게 된다는 기대가 더해졌다. 경도공장보건회에는 여러 부서들이 많았는데 연수를 받았던 곳은 종합 화상 진료부라는 곳이었다.

‘종합 화상 진료부’에는 ‘미가게(見掛) 차장님’ 이하 30여명의 방사선사들이 있었다.

여러 부서중 특이한 것은 ‘CS추진과’라고 하여 건강증진부 소속의 고객 만족도를 자체 평가하는 과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CS추진과는 2년전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야나가와(柳川)’ 선생님의 초음파 연수를 시작으로 3주간의 기술연수는 시작되었고, 사업장 검진 견학도 겸했다. 견학중 THP(Total Health Promotion)라는 검사도 체험해 보았다.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귀국후 알게 되었다.

늦은감이 있지만 빨리 시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업장 건강진단중 우리에게서 볼 수 없었던 두가지 면을 보았다.

그 첫번째는 검사자들이 정확한 검진을 위해 수검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배 피우는 광경을 보고 피우고 싶은 충동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성을 기하려는 철저함과 세심한 부분에 까지의 노력이 엿보였다.

두번째는 수검자가 검진장면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친절함을 들은바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은 예의를 차리는 친절함이 아니라 몸에 베어있는듯 싶은 친절함을 베풀어 몸둘 바를 몰랐고, 자신의 일에 대한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된 업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있음을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강하게 느꼈다.

한달가량의 기술연수동안 세심한 부분까지 가르쳐주신 경도공장보건회의 종합 화상 진료부 여러 선생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갖게 해준 JICA 여러 관계자분들과 무사히 연수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협회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종합화상 진료부 직원들과 함께